

농구

6

2019년 10월 2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KBL 개막 미디어데이 | 감독들이 찍은 공공의 적은?



프로농구 10개 구단 감독, 간판 선수들이 1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개막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새 시즌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KCC 이정현, DB 김중규, 전자랜드 박찬희, 삼성 이관희, SK 김선형, 현대모비스 이대성, 오리온 이승현, KT 허훈, KGC 양희종, LG 김시래, LG 현주엽 감독, KGC 김승기 감독, KT 서동철 감독, 오리온 주일승 감독, 현대모비스 유재학 감독, SK 문경은 감독, 삼성 이상민 감독,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 DB 이상범 감독, KCC 전창진 감독.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전력평준화? SK·현대모비스 우승후보”

현대모비스, 2019~2020 KBL 스폰서

현대모비스가 2019~2020 프로농구 타이틀스폰서를 맡는다. KBL은 1일 미디어데이에 앞서 현대모비스와 타이틀스폰서 조인식을 맺었다. 2006~2007시즌, 2010~2011시즌에 이어 세 번째로 타이틀스폰서를 맡게 된 현대모비스는 대회 공식 명칭을 포함해 KBL 10개 구단 경기장 내 광고 및 기타 제작물 등에 브랜드를 홍보하는 권리를 갖는다. 1977년 창립 이래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으로 성장한 현대모비스는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 창조를 위해 사회, 환경, 경제 분야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회 공헌에 힘쓰고 있다.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는 오는 5일 울산에서 펼쳐지는 울산 현대모비스와 인천 전자랜드의 공식개막전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정지욱 기자

DB·전랜·LG “SK가 제일 강해” 문경은 감독 “우승후보 기본 좋아” 현대모비스도 우승멤버들 건재 감독들 “재미있는 농구 선사” 약속

‘전력평준화.’

프로스포츠에서 종목을 막론하고 개막을 앞둔 시점에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남자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오는 5일 시즌 개막을 앞두고 1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개막 미디어데이를 열었다. 여기에는 10구단 감독과 각 구단 간판선수 1명씩 참석했다. 프로농구는 올 시즌도 어김없이 ‘전력평준화’가 화두다.

●그레도 강팀은 있다

팀간 전력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지만, 엄연히 우승후보는 존재한다.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10개 구단감독이 우승후보로 가장 많이 거론한 팀은 서울 SK와 울산 현대모비스였다.

원주 DB 이상범 감독은 “연습경기를 해본 팀 중에서 SK가 가장 강했다”라며 SK를 우승후보로 꼽았다. 인천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 서울 삼성 이상민 감독과 창원 LG 현주엽 감독도 SK와 현대모비스를 우승후보로 선택했다. 이 중 유도훈 감독은 “지난 시즌 챔피언에서 현대모비스에 졌기 때문에 한 팀만 꼽으려면 SK를 선택하겠다”고 재치 있게 대답했다.

SK는 새 외인 자필 워너(25·200cm)가 마카오에서 열린 터리픽12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여기에 애런 헤인즈(38), 김선형(31), 최준용(26), 최부경(31), 김민수(37) 등 선수 구성도 탄탄해

우승후보로 손꼽히기에 모자람이 없다. SK의 문경은 감독은 “시즌 전에 우승후보로 꼽히니 기분 좋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시즌을 맞겠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통합우승팀인 현대모비스는 리그 최고 센터인 라컨아(30·199cm)를 필두로 이대성(29), 양동근(38), 함지훈(35) 등 기존 주축멤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현대모비스의 유재학 감독은 “우리 팀 체육관 웨이트장에 보면 (이)대성이 54연승이라고 써 붙인 종이 있다. 부상자가 많아 걱정이지만 대성을 믿고 해보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SK와 현대모비스 이외에 고양 오리온, 안양 KGC, DB 등도 우승후보로 거론됐다.

●신나고 즐거운 프로농구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는 5일 개막해 팀당 54경기(6라운드)의 정규

리그를 치른다. 단 하나뿐인 챔피언 자리를 놓고 10개 팀이 경쟁하는 입장이지만, 신나는 농구가 팬들에게 재미를 선사해 프로농구 부흥에 이바지 하겠다는 마음만은 하나다.

오프시즌 동안 KBS 예능프로그램인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출연으로 인기를 모은 LG의 현주엽 감독은 “예능 출연을 하면서 우리 선수들의 인기가 올라갔다. 길을 가다 보면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 관심을 프로농구 시즌까지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오리온의 주일승 감독은 “TV를 틀면 뉴스나 예능프로그램이 재미있다. 이제 농구가 시작됐으니 농구가 제일 재밌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다. 10개 구단이 팔팔 뭉쳐서 국민 여러분들이 체육관을 찾고 농구 중계를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sports2i

스포츠투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야구 기록실 (30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수	승	패	승률	경기 연승	타율	홈런	홈런 득점	실점	WHIP	도루	실책	OPS
1	S K	144	88	55	1.0615	2승	0.262	3.48	0.620	655	546	117	118	0.87
2	두산	143	85	57	1.0613	0.5	0.277	3.50	0.648	730	545	84	102	0.83
3	키움	143	85	57	1.0599	2.5	0.282	3.63	0.634	777	571	112	109	0.99
4	L G	144	79	64	1.0552	9.0	0.267	3.86	0.577	641	633	94	108	0.95
5	N C	143	73	68	1.0518	14.0	0.277	4.00	0.571	669	625	128	86	0.92
6	K T	144	71	71	1.0500	16.5	0.277	4.29	0.577	650	661	103	104	1.02
7	K I A	144	62	80	1.0420	28.0	0.256	4.64	0.500	622	731	122	107	1.05
8	삼성	144	60	83	1.0402	0.1	0.264	4.65	0.542	605	723	76	87	1.10
9	한화	144	58	86	1.0403	30.5	0.256	4.80	0.431	607	737	88	105	1.06
10	롯데	143	48	92	1.0343	38.7	0.250	4.86	0.414	577	761	90	65	1.12

◆타격

순위	선수	팀	타율	경기 타수	안타	홈런	득점	타점	4사	상진	실책	득점권	OPS
1	왕희준	N C	0.353	117	385	136	20	61	67	4	63	43	2.0361
2	박민우	N C	0.341	124	464	158	1	89	44	18	50	40	0.9330
3	이정후	K T	0.336	139	572	192	6	89	68	13	49	40	2.3070
4	김백호	K T	0.336	116	438	147	13	72	65	9	67	87	0.8284
5	고종욱	S K	0.333	137	492	159	3	76	56	31	19	89	0.8341
6	로하스	K T	0.322	142	521	168	24	68	104	4	52	120	0.9297
7	박건우	두산	0.318	126	453	144	10	63	62	17	57	3	0.8283
8	유한준	K T	0.317	139	501	159	14	61	86	3	56	61	0.8726
9	채은성	L G	0.315	128	470	148	12	59	72	2	36	67	0.8392
10	김희성	키움	0.308	138	535	165	19	112	104	33	77	80	0.9633
11	이현중	L G	0.308	138	546	168	2	88	48	21	62	82	1.3333
12	김태균	한화	0.305	127	433	132	6	47	62	3	59	94	1.3017
13	신재호	키움	0.305	139	525	160	28	100	113	1	83	101	0.9302
14	김현수	L G	0.304	140	526	160	11	75	82	3	60	52	1.3299
15	전준우	롯데	0.303	140	542	164	22	84	83	8	53	71	0.4279
16	이건창	키움	0.301	112	425	128	2	67	41	17	52	50	0.6344
17	최형우	K I A	0.300	136	456	137	17	65	86	9	77	0	0.2633
18	김현근	삼성	0.297	114	411	122	5	57	46	10	45	41	0.3137
19	오재일	두산	0.294	129	462	136	21	76	102	2	58	98	0.4344
20	이명기	N C	0.294	138	479	141	2	62	36	14	52	65	0.2747
21	손아섭	롯데	0.294	133	507	149	10	78	63	13	53	92	0.2933
22	라 프	삼성	0.292	132	478	128	20	101	6	87	87	5	0.3179
23	최정	S K	0.292	141	503	147	29	96	9	3	56	92	1.4333
24	김성민	K I A	0.292	121	394	115	3	55	40	5	44	26	1.0297
25	최정호	한화	0.290	135	373	108	3	47	31	3	30	6	0.2257
26	허재원	두산	0.287	132	470	135	4	68	58	11	51	36	0.3187
27	이영호	L G	0.286	120	419	120	13	56	63	6	52	78	0.2489
28	최영민	한화	0.284	124	476	135	18	74	22	43	90	2	0.2629
29	황재하	K T	0.283	124	448	127	20	78	67	10	54	71	0.2622
30	김태훈	두산	0.283	135	491	139	15	76	91	3	68	111	0.3079
31	김태호	롯데	0.283	134	481	136	16	88	0	57	65	1	0.2907
32	김민혁	K T	0.281	127	466	131	0	68	32	22	45	61	0.2577
33	박병호	키움	0.280	121	428	120	33	98	0	91	115	6	0.2933
34	박세혁	두산	0.279	136	437	122	4	58	62	8	48	68	0.2887
35	로백	S K	0.276	137	504	139	29	86	95	6	79	117	0.2668
36	김성수	삼성	0.271	129	468	127	5	76	38	21	65	67	0.2287
37	유강남	L G	0.270	132	418	113	16	49	0	43	82	7	0.2107
38	김강민	S K	0.270	127	422	114	8	54	15	35	103	3	0.2968
39	이창진	K I A	0.270	133	400	108	6	57	48	8	61	92	0.2677
40	이재원	S K	0.268	139	451	121	12	73	75	4	43	59	0.3003
41	김재호	두산	0.267	129	374	100	4	50	48	3	73	58	0.2577
42	구자욱	삼성	0.267	122	475	127	16	66	71	11	45	88	2.3027
43	정수민	두산	0.265	122	437	116	0	74	41	26	63	58	0.2488
44	한동민	S K	0.265	125	427	113	12	50	52	0	75	100	0.2647
45	송광민	한화	0.264	122	454	120	7	50	51	8	24	91	0.2621
46	정은원	한화	0.262	142	564	148	8	83	57	14	48	101	1.3241
47	정은원	한화	0.262	142	564	148	8	83	57	14	48	101	1.3241

※ 득점권 타율 = 주자 2루, 3루, 1·2루, 1·3루, 2·3루, 만루시 타율 OPS : 홈루율 + 장타율

◆평균자책점

순위	선수	팀	경기	이닝	실점	자책	세	제	안타	홈런	상진	4사	피타율	WHIP	
1	양현종	K I A	2.29	29	184.2	56	47	16	8	0	165	6	163	35	0.2411
2	린드블럼	두산	2.50	30	194.2	57	54	20	3	0	165	13	189	35	0.2261
3	김경현	S K	2.51	31	190.1	64	53	17	6	0	198	13	180	40	0.2701
4	엘 리	L G	2.55	29	180.1	70	51	14	12	0	164	7	126	57	0.2431
5	산체스	S K	2.62	28	165.0	51	48	17	5	0	151	2	148	44	0.2441
6	월슨	L G	2.92	30	185.0	77	60	14	7	0	171	7	137	54	0.2451
7	브리징	키움	2.96	28	158.1	62	52	13	5	0	148	5	130	58	0.2451
8	루친스키	N C	3.05	30	177.1	68	60	9	9	0	164	13	119	56	0.2471
9	요 키	키움	3.11	29	178.1	71	62	13	9	0	162	9	139	50	0.2391
10	유희관	두산	3.21	27	165.2	66	59	11	8	0	170	8	162	45	0.2691
11	최원태	키움	3.38	27	157.1	68	59	11	5	0	165	5	105	41	0.2681
12	채도별	한화	3.50	29	177.1	73	69	11							